
the Galleria
SEPTEMBER 2026
FALL FORWARD
by REPOSSI
FALL FORWARD
DEPT.GALLERIA.CO.KR

LIFESTYLE

EDITOR CHUN HYE VIN

안 가본 미술관

다양한 아트 행사들로 가득한 예술의 달 9월엔 조금 낯선 곳을 찾아가자. 늘 가던 미술관, 잘 알려진 갤러리, 유명한 작가들의 전시에서 한 발 떨어져 새로운 시선으로 현대미술을 바라보는 '안 가본 미술관'들.







남서울미술관

@seoulmuseumofart

대형 전시가 자주 열리는 서소문 본관이나 뉴미디어 아트 특화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서울미술관, 사진 예술 특화인 사진미술관에 비해 서울시립미술관(SeMA)의 분관 중 하나인 남서울미술관은 대중에게 조금 낯설다. 사당역 인근에 위치한 이곳은 조각 작품 중심의 미술관으로, 대한제국 시기 벨기에 영사관으로 세워졌던, 유럽풍의 붉은 벽돌과 화강암이 어우러진 고풍스러운 건물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04년에 복원해 남서울미술관으로 개관했는데, 근대 건축 유산과 현대미술이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로 눈길을 끈다. 20세기 초 서양의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붉은 벽돌 외관, 높은 천장, 목재 계단, 장식적 창문 등을 잘 활용해 건축과 도시, 기억, 문화유산 등 다양한 주제를 현대미술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역사적 건축 공간을 경험하면서도 현대적인 전시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묘미를 선사하는 이곳에서 최근 열리고 있는 설치미술과 조숙진 작가의 개인전 〈조숙진 : 지나가는 자리〉에서는 공간과 작품의 조화로움이 빚어낸 아름다운 풍경을 목도할 수 있다.

BBK(Jongwan Jang×Junho Jang), Yaerim Ryu : Fool's Spring(2026) 전시 전경



상히읗

@sanghee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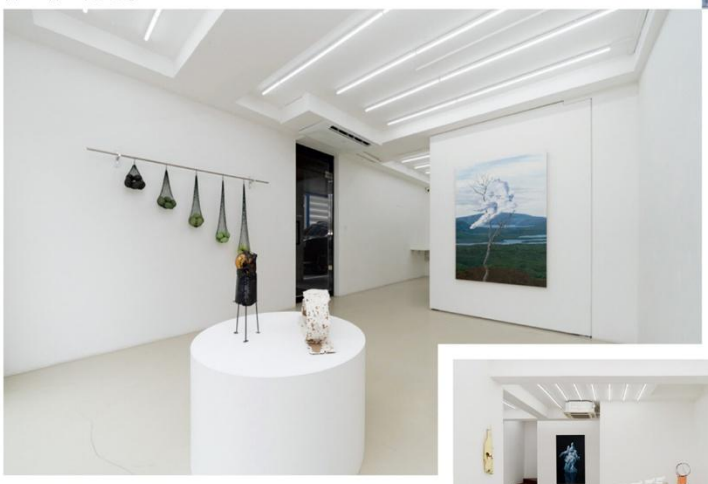
해방촌 초입, 반지하로 내려가는 다세대주택의 굳게 닫힌 철문을 열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남다른 관점과 방식을 통해 다양한 매체의 작품들을 소개하며 주목받고 있는 갤러리 상히읗. 타데우스 로팍 갤러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매체의 작업들을 실험적으로 기획하는 지혜진 디렉터가 운영하는 곳이다. 회화, 조각,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 폭넓은 매체를 다루며, 국내외 신진 작가들의 개인전과 기획전을 개최해 이들의 작업 세계를 장기적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자처한다. 넓지 않은 곳이지만 동선과 텍스트, 작품을 흐르듯 하나로 연결되게 하는 명민한 구성을 통해 관람객이 전시를 감상하면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자연스럽게 사유하고 해석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해방촌의 독특한 분위기와 지혜진 디렉터가 발굴한 실험적인 작가들의 작업이 교차되며 동시대 서울 아트 신의 현재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미지 제공 남서울미술관 〈조숙진 : 지나가는 자리〉 전경 사진, 서울시립미술관, 이동용 스튜디오 / 상히읗 갤러리 사진 최정림



〈All That Breathes〉(2024)
전시 전경

〈네트 Net〉(2026) 전시 전경





〈네트 Net〉(2026) 전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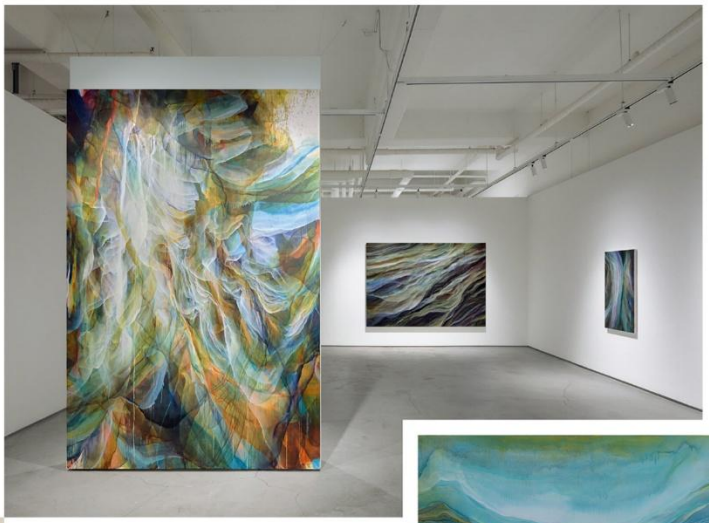
디스위켄드룸
@thisweekendroom

한남동에 위치한 컨템퍼러리 아트 갤러리로, 작은 규모가 무색할 만큼 촘촘한 밀도의 큐레이션과 다채로운 매체의 작업들을 선보인다. 이곳은 전통적 상업 갤러리로서의 행보보다는 작가 중심의 기획전, 그리고 작가와 관람객, 갤러리가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창조해내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주로 신진 작가들, 즉 1980~1990년대생을 중심으로 한 동시대 작가들의 참신한 작업들을 소개하는데, 이를 통해 잠재력 있는 신진 작가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관객들로 하여금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흐름과 앞으로 주목받을 작가들의 세계관에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 오는 8월 26일부터 라이프치히를 공통 회화적 기반으로 삼는 박지나, 루카스 카이저Lucas Kaiser, 율리우스 호프만Julius Hofmann, 틸로 바움게르텔Tilo Baumgärtel 작가의 4인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G Gallery
@ggallery.kr

가정집을 개조한 한남동의 작은 공간에서 시작해 어느덧 서울의 컨템퍼러리 아트 신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성장한 지갤러리. 설치와 조각, 회화 같은 전통적 매체뿐 아니라 아트 퍼니처와 뉴미디어 등의 새로운 장르까지 다양하게 아우르는 기획을 통해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짚어 나간다. 지하 전시 공간을 택한 건 넓은 구조를 활용해 대형 설치 작업과 미디어 작품 등을 다양하게 선보이기 위해서다. 또한 실험성과 완성도, 성실성을 겸비한 작가들을 발굴해 그들의 성장을 함께하는 플랫폼으로 활동하고, 국내외 미술기관, 큐레이터, 컬렉터들과 연계해 한국의 동시대 미술을 국제적인 맥락으로 잇는다. 지갤러리는 최근 프리즈 서울을 비롯 베이징, 상하이, 부산 등 다양한 도시에서 열린 아트페어에 꾸준히 참가해 글로벌 아트 신에서도 이름을 알리고 있다. 현재 맹지영 독립 큐레이터가 기획한 회화 작가 최윤희의 개인전 〈중력을 잊은 형상들〉이 열리고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볼 것.

〈중력을 잊은 형상들〉(2026) 전시 전경







최윤희 〈천천히 열기 #3〉, Oil on Canvas, 80.3×116.8cm, 2026

이미지 제공 디스위켄드룸, 아티스트 / 지갤러리 사진 이승현